

LeaderShip
SPP MasterShip
PartnerShip



Your Shipbuilding Partner

SPP Shipbuilding Group

造船速報

Shipbuilding Information Service

발행 : EAST PEOPLE
주소 : 서울 강남 역삼 705-9 삼흥 1213호
전화 : 02)3473-3321 FAX : 02)3473-3324
e-mail : epeople@unitel.co.kr

필리핀 수빅조선소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됩니다.

한진중공업
HANJI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2009. 7. 8.(水) 오늘의 HOT NEWS 제02-703호

꿈틀대는 LNG선 신조시장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조선 입찰을 알리는 LNG선 신조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수년간 멈춘 LNG선 신조입찰의 재개에 대해 조선소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졌으나 지난 10개월간의 신조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조선소들의 수주 경쟁이 필사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10년간 LNG선 신조시장에서 경쟁상대에서 밀려난 일본 조선업체들의 대반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간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하반기에 Shell을 필두로 줄지어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LNG-FPSO를 향한 일본 조선업체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가운데 본격적인 한일양국의 조선 대전의 막이 여름휴가를 계기로 서서히 불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LNG선 신조입찰 프로젝트로는 파푸아뉴기니의 PNG와 러시아의 Shtokman LNG 프로젝트로 연초부터 이미 수주를 위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PNG 프로젝트의 주요 입찰요건은 신조선이나 기존선박을 활용하는 것으로 15만~18만cbm급 LNG선을 최대 5척 조달하는 것으로 납기는 2013년 하반기 이후 순차적으로 인도되는 조건이다.

Shtokman 프로젝트의 경우 신조선으로 명시한 상태로 필요한 선형은 17만7천cbm급으로 7척~9척 정도를 조달하는 것으로 납기는 2014년을 요구하고 있다.(2면에 계속)



지식경제부 지정 "차세대 용접 생산/설계 기술자 재교육 사업"

용접기초교육과정(Ⅰ) 수강생 모집

- 대 상 : 업체 현장 용접 관리자, 설계자, 엔지니어
- 일 정 : 7월 15일 - 7월 16일
- 수강료 : 무료(중식 불포함)
- 장 소 : 대불공단클러스터추진단 강의실

- 문 의 : 한국항공대학교 현장기술인력 재교육사업단
☎ 02-300-0455 e-mail : dncclub@hanmail.net
- 수강신청 : 홈페이지 www.weri.or.kr

※ 주관기관 : 한국항공대학교



위탁기관 : 조선대학교



Strong protection at all points

HEMPEL Paints

- Easy application
- Exceptional strength
- Long-term protection
- Value for money

Hempel (Korea) Co. Ltd.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136, SK글로벌빌딩 5층
601-711

Tel : +82 (051) 647-5854

Fax : +82 (051) 647-6234

Email : sales@kr.hempel.com

Website : www.hempel.co.kr

주요 해양프로젝트, 하반기로 연기

극심한 선박 수주 가뭄을 해소시켜줄 것으로 기대됐던 초대형 해양 프로젝트들이 발주시기를 하반기로 늦추거나 불투명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쉘의 LNG-FPSO의 경우 초대형 프로젝트로 삼성중공업이 유력한 가운데 7월말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다고는 하나 서류상으로 '확답'을 받지 못한 실정으로 현대 및 대우 컨소시엄을 협상 대상으로 변경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라는 업계의 시각.

당초 6월로 기대됐던 호주 고르곤 가스전 플랜트 발주도 8월 말에서 9월 초로 시기가 늦춰졌다는 소문만 전해지는 가운데 빅3가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수주대상은 채굴한 가스를 담아둘 3개의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50개의 플랜트 모듈을 가스전 인근 섬에 세우는 것이다.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프로젝트는 오는 2017년까지 420억불, 57척의 드릴십 및 시추선을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부패 의혹으로 현지 의회의 국정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한편 업계는 단지 시기가 지연될 뿐 이들 프로젝트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는 올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삼호, '선박발주 취소' 언급 논란

현대삼호중공업(주)이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주들의 선박 발주 취소'를 시사하는 내용을 언급, 그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제는 사측 교섭위원이 언급한 '(회사도) 선주들의 취소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이다'는 부분으로 그동안 공식적으로 '납기 지연'은 일부 발생 했고, 발주 취소 요청도 있었지만 취소로 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다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측 교섭위원이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공식 석상에서 가뜩이나 힘겨운 조선업계 안팎에 큰 파문이 예상되는 '발주 취소'를 언급한 것을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기 보다 실제로 취소상황이 일어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는 지적.

또 조선업계에서 극히 민감한 부분인 '발주 취소' 언급을 노조 압박용으로 의도했다면 이 점 또한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

(1면에 이어)

특기할 사항은 북극해역에서 운항이 가능한 내빙용 사양을 갖추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극지운항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모스형이나 SPB방식에서 강한 일본 조선업체들의 도전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LNG 판매조건부 혹은 개발프로젝트에 지분 참여 등을 통해 일본 조선업체들에게 유리한 형국으로 유도해 나갈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사할린 가스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선업계의 다각적인 노력 및 전방위적인 수주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쟁이 예상되는 일본에서 LNG선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는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조선, 미츠이조선, 유니버설조선, 이마바리조선, IHIMU 등이며, 이들 가운데 특히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들어간 업체는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IHIMU 등으로 러시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대응,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미츠이조선은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니버설조선은 150K 이상의 대형 LNG선 시장 진출의사가 없으며, 이마바리의 경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번 사상 최대의 프로젝트로 불리며 총 52척을 발주한 카타르 프로젝트는 한국이 완전하게 석권한 바 있으며, 한일양국의 LNG선 건조실적은 한국이 152척, 일본은 91척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LNG-FPSO 분야의 시장 진출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쓰비시중공업 및 IHIMU의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차세대 용접 생산/설계 기술자 재교육 과정 수강생 모집

- 대상 : 업체 현장 용접 관리자, 설계자, 엔지니어
- 일정 : 2009. 8. 17(월) ~ 2010. 8월말(약 12개월) 주 4회(월, 화, 목, 금), 일일 2시간
- 수강료 : 1,770,000원/인
- 장소 : 부산 녹산산업단지공단

- 문의 : 한국항공대학교 현장기술인력 재교육사업단 ☎. 02-300-0455 e-mail : dncclub@kau.ac.kr
- 수강신청 : 홈페이지 www.weri.or.kr

※ 주관기관 : 한국항공대학교



위탁기관 : 조선대학교



대우조선, 노사임금협상 순항?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주요 조선사들은 늦어도 8월 초부터 시작되는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노사 임금 재협상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지난달 18일 임단협 잠정 협의안을 두고 노조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최종 부결로 끝남에 따라 하반기 노사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은 노조투표에서 노사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조설립 이후 처음으로 대우조선의 임단협 합의안 부결은 아직 임금 협상이 진행중인 STX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노조는 그동안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며, STX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도 금속노조 산하에 가입돼 있는 실정이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금속노조 산하에 있는 조선사들은 대우조선의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으나 조선업계의 임금협상이 큰 어려움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적지 않다.

STX조선해양의 경우 지금까지 노사가 수차례 본교섭을 하고 현재 실무교섭이 진행중이며, 한진중공업도 8월 이전 타결을 목표로 노사협상이 한창이다.■

유니버설조선, 올해 100억엔 흑자 예상

일본의 JFE지주사는 자회사인 유니버설조선이 2010년 3월회기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의 경상손실은 149억엔으로 고정비 삭감이나 강재가격 절감 효과로 100억엔 정도의 흑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엔지니어링사업도 전기와 동일한 100억엔 전후의 경상이익을 전망하고 있으며, 주력인 철강 사업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JFE는 유니버설조선에서 당장 3~4년치의 수주잔량을 활용, 고용 및 조업에서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원자재인 강재 가격 등의 하락으로 100억엔을 초과하는 조달비용의 절감 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며, 시리즈를 건조하면서 건조기간이나 생산성을 향상 이외에 고정비 절감도 진행하면서 적자 안건에 대응한 손실준비금이 전기보다 줄어들었다.■

해운업계, 선박매각 본격

국내 대형 해운업체들이 선박 매각에 본격 나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조성한 4조3천억원 규모 선박펀드에 대형 해운업체가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가 선박펀드 신청을 받아들인 선박은 15개 선사 62척으로 이 중 한진해운이 20척으로 가장 많고, 현대상선 8척, STX팬오션 6척, 대한해운 2~3척 등으로 나타나 '빅4' 선박이 전체 매입 대상 선박 중 50%를 넘는 것.

이들 업체는 현재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선박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며, 선박펀드는 오는 7월 말까지 1차로 매입할 선박에 대해 협상을 마무리 지을 방침.

이처럼 대형 해운업체들이 선박 매각에 대거 나섰다 것은 이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

해운업계 관계자는 "2분기에도 1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3분기 이후 조금은 나아질 것 같지만 올해 내내 비상 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해운업체들과 달리 그리스와 중국선사들은 최근 중고선 확보에 집중, 그리스 선주들이 올해 사들인 중고 선박은 총 46척이나 그리스 내부 통계로는 10억불 이상 규모에 중고선 70여척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역시 6월초까지 중고선 72척을 사들였다.◎

The power behind...
...profitable drilling operations



Power and productivity for a better world™ **ABB**

In the offshore drilling market, profitability is highly dependent on maintaining continuous operations with minimum downtime and off-hire. To achieve this, offshore operators demand the most reliable, high performance power and drives technology. ABB is the leading supplier of electric power systems including drilling and thruster drives to the world's drilling fleet. Based on well-proven ABB technology, we provide fully integrated electrical solutions designed for high performance, easy installation and lifetime serviceability. Visit us at www.abb.com/marine

ABB Marine & Cranes
Tel : + 82 51 621 2500
Fax : + 82 51 621 2918
E-mail : ji-seung.yoo@kr.abb.com

Keppel, 드릴링 리그 수주 기대

Jack-up 및 반잠수식 리그에 대한 신조 수요가 말라 버리면서 Petrobras의 대규모 시추선(:드릴링 리그) 발주계획이 싱가포르의 Sembcorp와 Keppel그룹이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주요 신조 프로젝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Nomura Singapore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심해 자원개발 시장의 기초 경제여건이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리그 신조발주가 현재 거의 중단된 상태이며, Sembcorp는 올해 들어 리그 2기를 수주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반잠수식 리그에 대한 투기성 발주(:용선계약 미정)가 2007년 및 2008년에는 전체 신조발주의 50%를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금융경색으로 인해 투기성 발주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OCBC 투자분석도 싱가포르 리그 건조시장에 대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오일 메이저 가운데 Petrobras만이 조만간 리그 신조 프로젝트를 발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Petrobras의 리그 신조 발주가 언제쯤 이루어질지는 아직도 불명확한 상태.

OCBC는 가까운 시일 내의 대규모 신조수주에 대한 큰 기대를 경계하면서 올해 말 또는 2010년 초 7기의 드릴링 리그 수주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았으며, 비용절감을 위해 Petrobras가 신조 보다 용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무라는 Petrobras의 첫 번째 리그 발주가 8월 내지는 9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발주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조선소들과 한국 조선소들 간의 Petrobras 신조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서는 싱가포르는 반잠수식 리그, 한국은 드릴십을 위주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Petrobras가 브라질 국내에서 리그를 건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브라질에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 Keppel과 Sembcorp가 리그

수주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일췌네이시, 필리핀 조선소 증설 완료

췌네이시홀딩스사는 지난 3년간 220억엔을 투자한 필리핀 세브섬의 조선소 증설공사를 완료했다.

도크를 신설, 18만톤 전후의 케이프급 벌커를 주력으로 건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브섬의 현지 조선소는 췌네이시 HD의 자회사인 췌네이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제 1조선소는 가동하고 있으며, 이번에 증설 공사를 통해 제 2조선소를 정비했다.

도크의 크기는 전체 길이가 450미터, 폭60미터로 전체 길이가 300미터 전후가 되는 18만톤급 전후의 벌커의 건조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

한국 최초 잠수함 수출 암초?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달 17일 한국과 러시아 등 4개국을 대상으로 벌인 입찰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유찰됐다.

인도네시아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고집하면서 이 분야 선두업체인 러시아만 단독 입찰하면서 유찰된 것으로 10일 재입찰을 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이 수출을 추진하는 잠수함은 1,400t급 2척으로 장보고함의 업그레이드판으로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하게 되며, 적당 최고 6억달러에 달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국내 방산 역사상 잠수함 수출은 전례가 없었다는 것으로 이에 야심차게 수출을 추진했지만 이번 역시 가격면에서 암초를 만나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각종 고위급 대화에서 사업 협력을 당부하고, 후속 군수 지원 등을 약속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가격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긴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러시아에 뒤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新興 ENG

TEL) 051-817-6455 . FAX) 051-818-2455

http://www.shinheungeng.co.kr / mail : shinheung@shinheungeng.co.kr

30년 전통을 지닌

선박목의장 업계의 산증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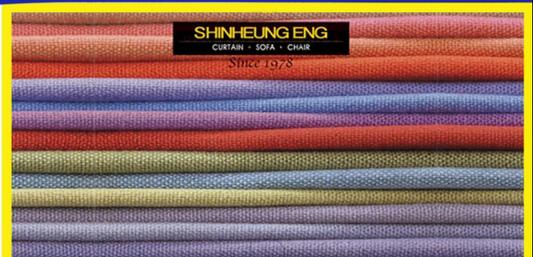
- CURTAIN
- SOFA
- CHAIR
- CARPET
- MATTRESS



Lloyd's Register

국내 최초

VINYL LEATHER MED Cert 취득



EU, 조선업종 지원 방안 검토

EU(유럽연합)이 선박량 과잉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노후선 해체 프로그램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 수급조정을 위한 것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유럽위원회(EC)는 또한 조선업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C위원회 해사부문 고위 관계자는 강화된 친환경 기준을 만족시키는 선박을 건조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연근해용 선박 위주로 해체를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럽의 일부 국가는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유 노후선박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유럽선주협회에서 제안한 선령 20년 이상 선박의 해체방안에 대해 Malta, Cyprus 및 Bulgaria 등의 반대가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현재는 선령 25년 또는 30년 이상의 선박 해체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한편 유럽지역 조선소들은 신조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현재 큰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선업계 "지원"(:보조금의 완곡한 표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유럽의 조선소들은 국가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 '보호주의'의 부활이라며 이를 배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

MSC, 크루즈선 추가발주 조만간 결정

MSC Cruises사가 선가 재조정을 위해 보류 중인 2척의 크루즈선 신조 발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늦어도 올 연말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MSC사는 지난해 9월 STX France의 Saint Nazaire조선소에 크루즈선 2척을 10억유로(:13억9천만불)에 추가로 발주하기로 하였으나 12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선가 하향 조정을 위한 재협상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도 양측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MSC Aponte 회장은 지난 주말 'MSC Splendida'호의 인도식 참석을 위해 Saint Nazaire조선소를 방문, 추가 발주가 고용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금년) 추가 발주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TX France의 Jacques Hardelot CEO는 MSC Cruises의 크루즈선 2척 추가 발주 건이 1척으로 축소될 수 있으며, 선박 건조자금 융자를

위해 프랑스 정부가 보증을 제공할 것을 선주가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aint Nazaire조선소의 수주잔량은 지난 7월 4일 인도된 'MSC Splendida'호를 제외하면 크루즈선 2척(:내년 상반기 인도 예정)과 프랑스 해군이 발주한 BPC 1척이 전부이다. ▣

Damen조선, 탱커 2척 수주

네덜란드계 Damen조선그룹이 베트남 최초의 정유공장이 운용하게 되는 탱커 2척의 신조계약을 체결했다.

현지보도에 따르면 계약가격은 1,600만불로 2010년 12월까지 모두 인도될 예정이며, 신조 선박은 베트남 Dung Quat정유공장에 원유를 운송하는 데 운용될 예정이다.

Damen은 PetroVietnam 자회사인 PetroVietnam Technical Services사와 함께 공동으로 신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며, Damen은 Vinashin과 합작으로 베트남에서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다. ▣

히타치조선, 박용엔진 자체제작 늘려

히타치조선은 박용 엔진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의 자체 제작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0년 봄까지 대형 부품을 거의 전량 자사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 정밀 부품의 외주 의존도도 5%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공장 간의 인원배치도 재검토, 산업 기계 제작인력의 일부를 돌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당장 엔진 수주가 감소한 가운데 설비 가동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제조원가의 절감도 노리고 있다. ▣

홍콩수리조선소, 하반기 침체 가속

홍콩 Yulian도크의 CEO 李恩博은 며칠 전 언론을 통해, 전 세계 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현재 홍콩 수리선업의 상황 또한 저조하여, 수리가 필요한 선박이 도크에 들어가기 위해 더 이상 줄지어 대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이곳 수리조선소에서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평균 2달을 기다려야 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으며, 올 하반기에는 더욱 저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컨테이너선은 작년 이곳 도크 수리선박 비율의 약 80%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시장의 침체로 인해 계류,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수리선박 물량과 매출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최악의 경영난에 들어선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의 물동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